

도심권

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30.5% 상승,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

- 전년동월대비 +30.5% = 소매업의 기여도 +22.0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8.4%p
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지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[관련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](#)
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32.5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26.2% 상승

- 도심권은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(전년동월대비) 상승했으며(단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, 음식료품은 하락), 특히 전월에 이어 무점포소매(80.1%)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권역별 소비경기지수가 서울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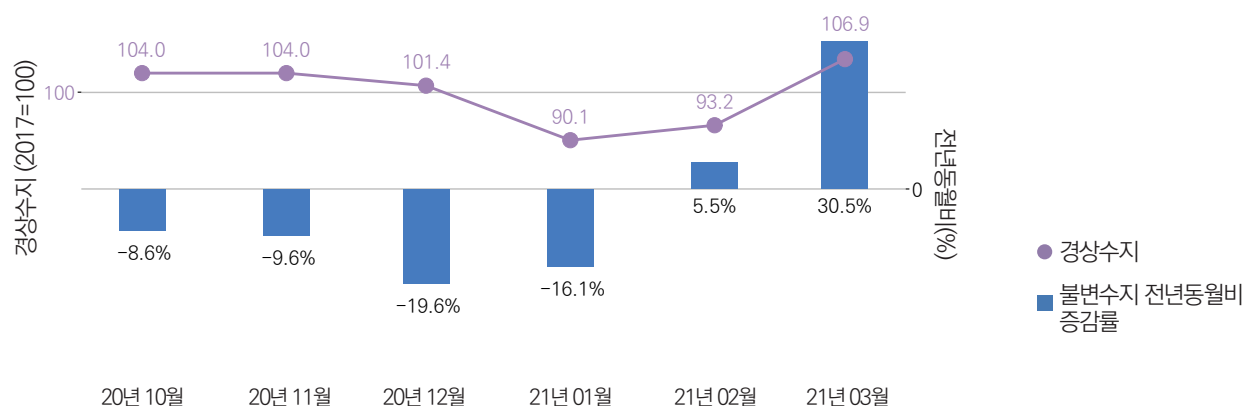
· 3월 도심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종합소매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가정용품, 기타상품 순으로 소비증가

· 반면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, 음식료품 순으로 소비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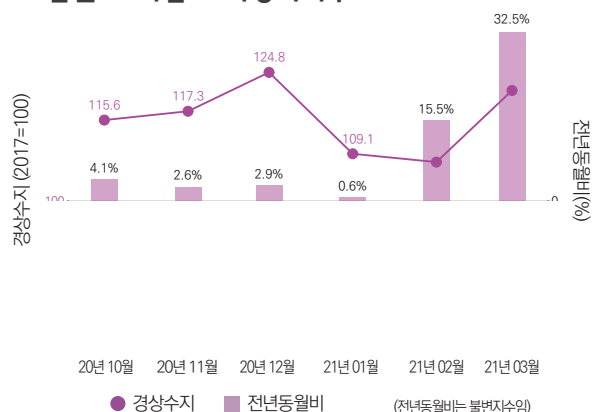
- 도심권은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숙박·음식점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(전년동월대비) 상승. 특히 숙박(96.5%)과 음식점(16.9%)의 (전년동월대비) 오름폭이 서울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, 3월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서울 권역 중 가장 높음

· 3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

| 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|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